

## 청소년의 경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Variables Associated with Adolescent Deviant Behaviors

---

강희경(Kang, Hee Kyung)\*\*

---

본 연구는 부모애착, 자아통제력이 청소년의 경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경비행 친구의 매개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사회통제이론과 일반이론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초등학교 4학년 5차년도 자료 2,448 사례였다.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모형의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이 모두 자료에 적절한 모형적합도를 보여주었으며, 구조모형의 모든 경로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자아통제력, 경비행친구는 청소년 경비행에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부모애착과 자아통제력은 경비행친구의 매개 과정을 통하여 간접효과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실천적 개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제어: 청소년 경비행, 부모애착, 자아통제력, 경비행 친구

\* 이 논문은 2009년도 서일대학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1저자(교신저자): 서일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khkyung@seoil.ac.kr

## I. 서론

청소년 비행에 대한 최근 통계는 그 연령이 점차로 낮아지고 있으며, 재범율의 증가라는 새로운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 비행의 유형에 있어서도 음주, 흡연과 같은 약물사용, 폭행, 절도 등과 같은 중비행, 잦은 결석과 시험 중 부정행위 등과 같은 경비행 내지는 일탈행동,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이버 비행 등과 같이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비행은 청소년 개인의 적응 과정에서 위기를 경험하게 할 뿐 아니라 성인기의 범죄행동과도 연관이 있는 것(Loeber, 1982)으로 나타난다. 청소년 비행은 어린 시절 한 차례의 통과외레나 실수가 아니라 성인기 범죄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단 비행에 진입하면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많은 실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예방과 대응 전략이 미흡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정밀한 고찰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정혜원,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비행 유형 중 경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비행에 이르는 경로에 주목을 하고자 한다. 경비행은 지위 비행이나 중비행과는 달리 그 행동의 경중에 있어 상대적으로 주변의 관심이나 주목을 끌기 어려울 뿐더러 행위자인 청소년의 입장에서도 그 행동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행하게 된다는 점, 이러한 행동의 습관화가 이후의 지위비행이나 중비행, 성인기 범죄로까지 발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다양한 연구결과물들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가족 환경 요인 및 친구 요인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서는 자아통제력, 가족환경 요인으로서는 부모애착 그리고 친구요인으로 비행친구의 존재의 영향을 규명할 것이다. 일반이론(Gottfredson & Hirschi, 1990)은 최근 들어 범죄와 비행을 설명하는데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론 중 하나로, 모든 형태의 비행은 개인의 낮은 자아통제력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이 사회적 통제 요소인 사회적 유대가 와해될 때 일어난다는 관점으로,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유대는 부모와의 애착으로 간주한다. 부모애착(권중록, 2009; 김영미, 2006; 목점선, 2004; 전영실, 2007; 정혜원, 2008; Sokol-Katz, Dunham, & Zimmerman, 1997)과 자아통제력(김재엽 · 이효정 · 강민정, 2007; 남현미, 옥선화, 2001; 목점선, 2004; 이경남, 2002; 정소희, 2007)

이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가정은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이외에 청소년 비행에 있어 친구 관련 요인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가정은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과 일반이론(Gottfredson & Hirschi, 1990)에서도 지지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학습 이론(Synder, Reid, & Patterson, 2003) 등 여러 이론들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강력한 영향 요인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경로에서 친구요인이 갖는 매개적 역할이다. 청소년 비행은 그 속성상 누군가와 함께 일어나며, 비행청소년은 비행친구를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Hirschi, 1969). 또한 일반이론(Gottfredson & Hirschi, 1990)에서는 낮은 자아통제력이 비행친구와의 접촉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론적 가설을 제시하고 있어서 비행친구의 매개적 역할을 지지해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착, 자아통제력 및 경비행 친구 존재가 청소년의 경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뿐 아니라 부모의 애착과 자아통제력이 청소년의 경비행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비행 친구의 매개 효과를 확인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부모의 애착, 자아통제력 및 경비행 친구는 청소년의 경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부모의 애착과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은 경비행 친구의 매개적 역할을 통해 청소년의 경비행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 애착과 청소년 비행

사회통제이론의 기본 전제는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와해되면 비행이 일어난다는 것이다(Hirschi, 1969). 청소년 행동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행을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한다. 아동기 내적 통제 발달의 실패, 청소년기에 이미 형성된 내적 통제의 붕괴 또는 약화, 사회적 해체, 특히 가족과 같은 사회적 단위의 해체로 인한 외적 통제의 약화 등을 이유로 사회적 통제가 약해진다고 본다(Sokol-Katz et al., 1997). 따라서 가족은 개인의 내적·외적 통제 발달에 있어 중요한 기여 요인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가족 관계는 관습적 행동의 규범 습득 뿐 아

나라 사회적 통제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Hirschi, 1969).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에서는 사회적 유대가 애착(attachment), 참여(commitment), 관여(involveemnet)와 신념(belief)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본다. 애착은 타인에 대한 애정, 타인을 존중하여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것이다. 사회규범은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이므로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은 타인의 바람, 기대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한 개인이 타인의 바람이나 기대를 개의치 않는다면 그는 그만큼 규범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여는 범위반이나 일탈에 연루됨으로써 상실할 수도 있는 개인의 인습성에의 투자분이나 순응에의 이해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한다. 참여는 인습적인 활동에 열중하는 것이며, 신념은 법과 사회규칙이 도덕적으로 옳으며 지켜져야 한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그 중에서도 Hirschi(1969)는 가족원 간의 유대가 관습적 행동의 규범을 내면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년의 비행에 중요한 기여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부모와의 애착이 자녀의 비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경험적 연구들(권중록, 2009; 김영미, 2006; 전영실, 2007; 정혜원, 2008; Sokol-Katz et al., 1997)을 통하여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김영미(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유대가 낮을수록 음주자나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중록(2009)의 연구에서도 미국 청소년들의 가족연대가 청소년의 마약에 대한 태도와 마약이용정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okol-Katz 등(1997)의 연구에서도 가족애착은 청소년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영실(2007)의 연구에서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애착이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인 효과를 갖지만,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간접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일반이론과 자아통제력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일반이론에 의하면 모든 형태의 범죄와 비행이 개인의 낮은 자아통제력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이들은 비행이 순간 만족과 욕구에 따라 충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비행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구분할 수 있는 성향도 순간 만족과 충동성을 통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아통제력이라고 설명한다.

이렇듯, 자아통제력이란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하

는 것으로, 자아통제력이 낮은 개인은 충동적이고, 복잡한 일보다는 단순한 과업을 선호하며, 위험한 모험을 추구하고, 인지적인 사고활동 보다는 육체적인 활동을 좋아하며, 자기중심적이어서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잘 내는 특성을 보인다(Gottfredson & Hirschi, 1990). 이 이론이 일반이론으로 불리는 이유는 자아통제력이라는 내적 성향이 청소년 비행 뿐 아니라 사소한 문제행동, 성인들의 범죄 등 모든 유형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며, 모든 문화권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미국 뿐 아니라 국내 선행 연구(민수홍, 2006; 이성식, 2005; 정소희, 2007)를 통해서도 일반이론이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자아통제력이 부모의 양육방법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보았는데, 부모의 감독 부재, 애정 결핍, 무계획적 생활 습관의 방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훈육 부재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내적 통제력이 낮아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쉽게 비행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아동기에 형성된 자아통제력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가 되어서도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성을 보이므로, 청소년기 비행은 성인기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통제 이론(Hirschi, 1969)에서 제시하는 부모애착과 일반이론(Gottfredson & Hirschi, 1990)의 자아통제력의 상호관계를 유추하면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임을 어렵지 않게 가정할 수 있겠다. 실제로 목점선(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자아통제력은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청소년의 비행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중요한 변수임이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면, 목점선(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통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아통제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을 뿐 아니라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경남(2002)의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비행에 자아통제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애착은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아통제력과 어머니의 애착 모두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통제력은 서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적 가정을 지지해준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재엽 등(2007)의 연구에서도 자아통제력은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소희(200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에 자아통제력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재엽 등(2007)의 연구에서도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학교폭력 가해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남현미와 옥선화(2001)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문제행동에 자아통제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의 비행에 자아통제력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3. 비행 친구와 청소년 비행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또래 친구와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친구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또래집단에 대한 순응성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청소년 비행과 비행 친구 간의 상관관계는 많은 실증적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일반이론(Gottfredson & Hirschi, 1990)에서도 낮은 자아통제력과 친구 집단과의 상관관계에 주목을 한다. 이론에 의하면, 자아통제력이 낮은 개인은 행동에 대한 훈육이나 감독, 통제가 요구되는 학교나 직장, 가정과 같은 환경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낮은 자아통제력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거리에서 동성의 또래집단과 어울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낮은 자아통제력을 갖고 있는 개인들은 좋은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낮은 자아통제력은 신뢰할 수 없고 신용이 없으며, 이기적이고 사려 깊지 못한 성향과 관련이 된다. 이들은 자아통제력이 높은 대상자들에 비해 위험하고도 짜릿하며 무모한 활동을 즐긴다. 이러한 성향은 청소년기 또래 집단 구성원이 되는데 결정 요소가 될 뿐 아니라 구성원들 간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Gottfredson & Hirschi, 1990).

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에서도 비행친구의 존재를 비행의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행의 대부분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며, 비행청소년들은 반드시 비행친구들을 갖는다. 비행청소년들은 비행친구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비비행친구들은 비행친구를 가질 가능성이 낮아진다. 즉, 비행에 대한 기술과 태도, 가치들을 배울 수 있는 비행친구들을 만나게 된 이후에야 비행자가 된다는 것이다(Hirschi, 1969).

사회학습이론 역시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사회적인 관계가 비행을 포함한 반사회적 행동을 발생하게 하는 학습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Synder, Reid, & Patterson, 2003). 이렇듯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일반이론 뿐 아니라 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서도 비행 친구의 존재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여 요인임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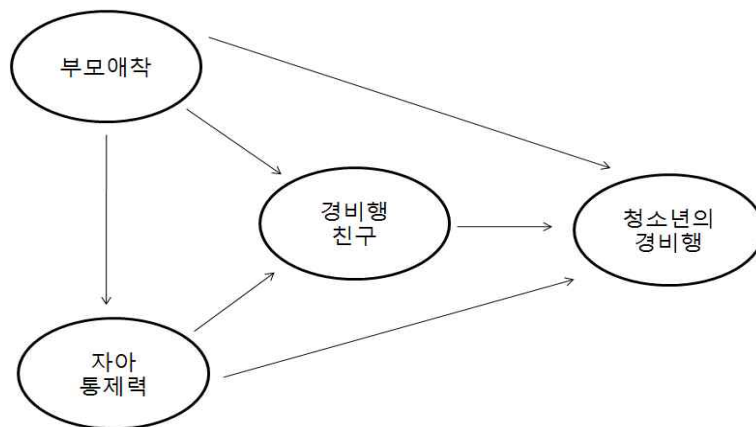
한편 부모애착이 비행 친구의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들(김준호, 안호용, 김선애, 김선업, 2002; 박현선, 이상균, 2008)은 부모와의 강한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비행 친구와의 교류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청소년 비행과 비행 친구 간의 관계를 규명한 실증적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패널자료를 분석한 김동기와 홍세희(200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식(2007)의 연구에서도 낮은 자아통제력보다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더 크고, 특히 중비행의 경우 낮은 자아통제력의 영향은 비행친구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을 주요 근간으로 하여 부모애착과 자아통제력, 경비행 친구가 청소년의 경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함과 동시에 경비행에 미치는 주요 경로로써 경비행 친구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게 될 것이다.

#### 4. 연구모형

앞서 논의한 사회통제이론과 일반이론에 근거하여 구성한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모형에서 보여주듯이 부모애착은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통제력은 경비행 친구 교류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다시 청소년의 경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이며, 부모애착과 자아통제력 역시 청소년의 경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1> 연구모형

### III. 연구방법

#### 1. 분석 자료 및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8년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n Youth Panel Study : KYPS) 초등학교 4학년 5차년도 자료 2,448사례이다. 이 중 남자 청소년은 53.2%(1,303명), 여자 청소년이 46.8%(1,145명)였다. 2008년 조사 당시 학교 재학 여부에 있어서는 99.8%(2,444명)가 학생이었고, 0.2%(4명)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상태여서 대상자 대부분이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가족 구성 형태에 있어서는 양부모가족이 91.8%, 한아버지 가족 2.9%, 한어머니 가족 3.8%, 계부친모가족 0.6%, 친부계모가족 0.9%,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는 0.1%의 분포를 보였다.

####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 1) 부모 애착

부모 애착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으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부모 애착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그리고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로 구성된다. 이에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문항들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a 계수는 0.897이었다.

##### 2) 자아통제력

자아통제력은 충동성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을 5점 Likert 척도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학교숙제를 제 때에 잘 해가지 않는 편이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역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므로, 분석에서는 역채점을 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Cronbach's  $\alpha$  계수는 0.755로 나타나서 적합한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 3) 경비행 친구

본 연구에서는 경비행을 청소년이 가정,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행하는 개인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의 경비행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 건너기', '일부러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타기', '선생님 앞에서 소리지르며 대들기', '시험시간에 컨닝(부정행위)하기',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결석하기', '학용품비, 준비물비 다른데 사용하기',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다른 친구를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친구를 헐박하기' 등의 9가지 경비행의 유무로 측정하였다. 이에 경비행 친구의 존재는 이러한 9가지 경비행을 하는 친한 친구의 존재 유무 점수 합점으로 분석에 적용하였다. 즉, 특정한 경비행을 하는 친구가 없는 경우에는 0점,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1점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경비행 친구의 존재 점수는 0점에서 9점 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 4) 청소년의 경비행

조사 대상 청소년의 경비행은 앞서 기술한 9가지 경비행의 경험 유무를 합산한 점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9가지 유형의 경비행 중 한 가지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는 0점으로, 9가지 유형을 모두 경험한 청소년은 9점의 점수 분포를 보이게 된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응답 청소년의 다양한 비행 유형의 경험 유무와 최근 1년간 행동 빈도를 묻는 것으로 문항이 구성된다. 본 연구 목적을 감안하면, 다양한 9가지 경비행 유형 간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비행의 1년간 행동빈도를 합점하는 것이 해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분석에서는 9가지 경비행의 경험 유무에 대한 합점으로 분석하였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 분석을 위하여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은 여러 개의 측정변수(measured variable)를 이용해 추출한 공통변량을 잠재변수로 사용하므로 그 변수의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를 통제할 수 있고, 매개 변수의 사용

이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이론 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의 조사 설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이에 개념 측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을 검증하였으며, 검증한 측정모형을 적용하여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구조모형(structure model)을 적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위하여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NFI(Normed Fit Index), 절대적 적합도 지수는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이전에 주요 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skewness) 및 첨도(kurtosis) 지수를 검토하였고, 결측치를 우선적으로 점검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주요 변수의 정규성 검토 및 청소년 경비행의 일반적 경향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전,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 지수를 구하였다. 왜도와 첨도는 0에 가까울수록 정규성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0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10.0이상일 경우에는 정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Klein, 1998).

<표1>에서 보여주듯이 왜도는 -.16~1.95 사이에, 첨도는 -.01~6.28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정상성에 가까운 분포임을 알 수 있었다. 결측치는 모든 측정변수가 0%로 나타나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1> 주요 측정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

(N=2,448)

변수	평균(표준편차)	범위	왜도	첨도
부모애착	21.05(4.78)	6-30	-.16	.03
자아통제력	20.95(4.43)	6-30	-.12	-.01
경비행친구	1.87(1.96)	0-9	1.62	2.54
청소년의 경비행	1.28(1.15)	0-9	1.95	6.28

<표2>는 9가지 유형의 청소년 경비행에 대한 실태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여주듯이 연구대상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 경비행의 유형은 '횡단보

도가 아닌 곳에서 길 건너기(77.1%)', '학용품비, 준비물비 다른데 사용하기(13.5%)', '선생님 앞에서 소리지르며 대들기(10.4%)'이고, 상대적으로 그 경험이 적은 경비행의 유형은 '다른 친구를 협박하기(1.2%)',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결석하기(2.8%)', '다른 친구를 집단 따돌림시키기(4.2%)'임을 알 수 있다.

〈표2〉 청소년의 경비행 실태

(N=2,448)

경비행 유형	내 용	경험 없음(%)	경험 있음(%)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 건너기	남	337(25.9)	966(74.1)
	녀	224(19.6)	921(80.4)
	전체	561(22.9)	1887(77.1)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타기	남	1196(91.8)	107( 8.2)
	녀	1021(89.2)	124(10.8)
	전체	2217(90.6)	231( 9.4)
선생님 앞에서 소리 지르며 대들기	남	1174(90.1)	129( 9.9)
	녀	1019(89.0)	126(11.0)
	전체	2193(89.6)	255(10.4)
권닝(부정행위)하기	남	1251(96.0)	52( 4.0)
	녀	1088(95.0)	57( 5.0)
	전체	2339(95.5)	109( 4.5)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결석하기	남	1268(97.3)	35( 2.7)
	녀	1112(97.1)	33( 2.9)
	전체	2380(97.2)	68( 2.8)
학용품비, 준비물비 다른데 사용하기	남	1149(88.2)	154(11.8)
	녀	968(84.5)	177(15.5)
	전체	2117(86.5)	331(13.5)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시키기	남	1254(96.2)	49( 3.8)
	녀	1091(95.3)	54( 4.7)
	전체	2345(95.8)	103( 4.2)
다른 친구를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남	1219(93.6)	84( 6.4)
	녀	1110(96.9)	35( 3.1)
	전체	2329(95.1)	119( 4.9)
다른 친구를 협박하기	남	1279(98.2)	24( 1.8)
	녀	1139(99.5)	6( 0.5)
	전체	2418(98.8)	30( 1.2)

## 2.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을 분석하기 전, 구조모형의 측정변수들이 각 잠재변수들을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은 확인적 요인분

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각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요인적 재량(factor loading)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각 잠재변수들을 구성하는 측정변수 후보군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 애착, 자아통제력 모두 단일차원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서 무작위로 3영역으로 항목묶기를 실시하여 합산한 점수를 지표로 적용하였다. 항목묶기는 여러 항목을 합산한 점수로 산출하여 지표의 수를 줄여 사용하는 것이다. 항목묶기를 하면 모형을 주요하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사례수당 측정해야 할 변수의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추정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Klein, 1998).

구조모형의 잠재변수들을 모두 포함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에서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 CFI=.918, NFI=.913, 그리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075로 분석되었다. CFI와 NFI는 0과 1사이의 값을 보이는데, 0.9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된다. RMSEA는 0.06미만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08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로 본다(Browne & Cudeck, 1993)

<표3> 연구모형의 적합도

	X2	df	CFI	NFI	RMSEA
모형	806.4	48	.918	.913	.075

<표4>는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0.01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표에서 보여주듯이, 부모애착과 자아통제력은 청소년의 경비행과 부적 상관을, 경비행 친구의 존재는 청소년의 경비행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통제력과 경비행 친구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

	부모애착	자아통제력	경비행 친구	청소년의 경비행
부모애착	1.00			
자아통제력	.23**	1.00		
경비행 친구	-.12**	-.26**	1.00	
청소년의 경비행	-.16	-.30**	.49**	1.00

\*\* p<.01

### 3. 구조모형 분석

<표5>는 매개변수를 포함한 완전구조모형(full structural model)의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잠재변수들 간의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경비행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beta=-.084$ ), 자아통제력 역시 경비행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beta=-.248$ ). 경비행 친구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경비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beta=.624$ ). 부모애착과 자아통제력은 경비행 친구 존재의 매개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경비행에 간접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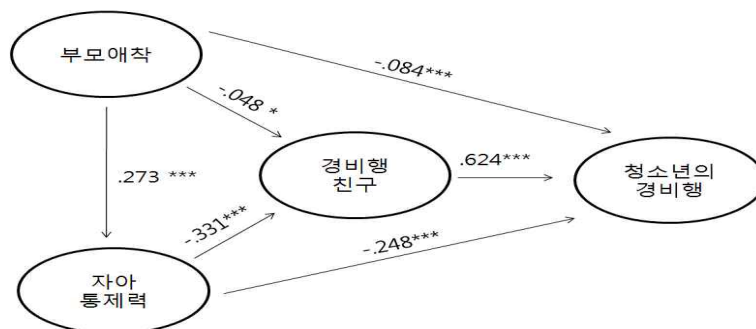
즉, 부모애착 수준이 낮은 것은 경비행 친구와의 접촉 빈도를 증가시키고( $\beta=-.048$ ), 경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경비행 빈도는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beta=.624$ ). 그리고 자아통제력이 낮을수록 경비행 친구가 많아지며( $\beta=.331$ ), 경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경비행이 많아지게 된다( $\beta=.624$ ). 또한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통제력이 높아지며( $\beta=.273$ ), 이는 다시 경비행친구의 경로를 통하여 청소년 경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연구가정의 모든 경로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지만, 부모애착( $\beta=-.084$ )과 자아통제력( $\beta=-.248$ )에 비해 청소년의 경비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비행 친구의 존재( $\beta=.624$ )임을 알 수 있다.

<표5>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t값
부모애착→경비행	-.011	.004	-.084	-3.189***
자아통제력→경비행	-.034	.005	-.248	-11.008***
경비행친구→경비행	.214	.014	.624	14.940***
부모애착→자아통제력	.267	.025	.273	10.819***
부모애착→경비행친구	-.019	.010	-.048	-1.908*
자아통제력→경비행친구	-.133	.012	-.331	-11.008***

\*p<.05 \*\*\*p<.001



<그림2> 구조모형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과 일반이론(Gottfredson & Hirschi, 1990)에서 중요한 변수로 제시된 부모애착, 자아통제력 및 비행 친구의 영향력을 검증함과 동시에, 친구 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초등학교 4학년 5차년도 자료 2,448 사례였으며,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애착은 청소년의 경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경비행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들(권중록, 2009; 김영미, 2006; 목점선, 2004; 전영실, 2007; 정혜원, 2008; Sokol-Katz et al., 1997)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가족 유대가 관습적 행동의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므로, 부모 애착이 청소년의 비행에 중요한 기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개인의 발달과정에 있어 가족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지속적이며 누적적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청소년기에도 부모 애착이 청소년의 경비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비행 발달 과정에 있어 반드시 가족 요인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의 확장되고 복잡해지지만, 가족 환경은 여전히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둘째, 자아통제력은 청소년의 경비행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아통제력이 낮을수록 경비행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역시 초기 연구 가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일반이론(Gottfredson & Hirschi, 1990)을 지지해 주면서 선행 연구들(김재엽 등, 2007; 남현미, 옥선화, 2001; 목점선, 2004; 이경님, 2002; 정소희, 200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충동적이며 쉽게 화를 잘 내고, 인지적인 사고활동보다 육체적 활동을 선호하는 것은 낮은 자아통제력을 보여주는 특성이기도 하다. 이는 잘못된 부모의 자녀 양육 과정에서 비롯되어지며, 한번 형성된 낮은 자아통제력은 성인기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인다(Gottfredson & Hirschi, 1990).

더불어 본 연구 분석 결과에서도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 비행 예방에 있어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뿐 아니라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이루어

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낮은 자아통제력이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스스로의 욕구 조절에 어려움을 갖는 청소년을 위한 충동조절 및 분노 조절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경비행 친구의 존재는 청소년 경비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 건너기, 선생님 앞에서 소리지르며 대들기, 시험시간에 부정행위하기, 학교에 연락하지 않고 결석하기 등 9가지 유형의 청소년 경비행에 이러한 경비행을 저지르는 비행친구의 존재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초기 연구가정 뿐 아니라 선행 연구들(김동기, 홍세희, 2007; 이성식, 2007; Synder et al., 2003)과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개인이 성장·발달하면서 상호교류하는 사회적 환경은 다양해지며, 확장된다. 특히 청소년 비행에 있어 비행 친구의 존재가 비행을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결과는 비행 예방 및 실천적 개입이 또래 집단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단지 청소년기 진입이 이루어지면서 실행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또래 친구의 존재가 아동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로 부각되는 학령기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부모 애착과 자아통제력은 경비행 친구의 매개적 역할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애착이 낮을수록 경비행 친구와의 접촉 빈도를 증가시키고, 경비행 친구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경비행이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통제력이 높아지고, 자아통제력이 높을수록 경비행 친구는 적어지며, 이는 다시 청소년의 경비행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즉, 청소년 경비행에 있어 경비행 친구 존재는 중요한 매개 경로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경비행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비행 친구의 존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청소년기 비행을 위한 실천적 개입 및 예방에 있어 집단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적 노력들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관계가 형성되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받는다. 즉, 초등학교 뿐 아니라 방과후 보육 현장에서 건강한 또래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적 예방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이 이론적 가정 없이 청소년 비행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 왔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 및 일반이론(Gottfredson & Hirschi, 1990)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의 경비행에 영향을 미치

는 부모애착, 자아통제력 및 비행친구들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에 이르는 발달적 경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경비행 친구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여 청소년 비행 경로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도모하였다고 보여진다. 즉, 이러한 시도는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설명력을 높였을 뿐 아니라, 청소년 경비행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렇게 본 연구의 결과들은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비행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적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청소년 비행의 예방 차원에서의 부모교육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까지 확대되어야 할 뿐 아니라, 건강한 또래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적 개입이 친구에 대한 순응성이 나타나는 학령기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2차 자료 분석이라는 연구 설계로 인하여 주요 변수인 부모 애착, 자아통제력 및 청소년 경비행 등의 측정이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다. 또한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을 검증하지 못한 점은 후속 연구의 몫으로 남는다.



## 참 고 문 헌

- 권중록(2009). 공익광고와 사회통제 요인이 청소년의 마약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보학연구**, 13(1), 5-35.
- 김동기, 홍세희(2007).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추정 :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 검증. **조사연구**, 8(2), 21-42.
- 김영미(2006). 청소년 음주와 흡연에 대한 가족구조와 사회통제적 요인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3(6), 151-178.
- 김재엽, 이효정, 장민지(2007). 가족응집력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4(6), 173-201.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준호, 안호용, 김선애, 김선업(2002). 가족의 구조·기능과 청소년비행. **한국청소년연구**, 13(1), 225-267.
- 남현미, 옥선화(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 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 목점선(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애착 · 학교생활적응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수홍(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 패널자료를 이용한 인과성 및 일반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13(6), 27-47.
- 박현선, 이상균(2008). 청소년기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및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7, 399-427.
- 이경남(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성식(2005). 사이버상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일반이론의 검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 227-249.
- 이성식(2007).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청소년비행에의 영향 :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8(2), 159-181.
- 전영실(2007). 가족유대와 비행의 관계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수정된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19(1), 277-304.
- 정소희(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사회복지연구**, 32, 5-34.

- 정혜원(2008).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0(3), 149-165.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pp.136-162). Newsbury Park , CA : Sage.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lein, R. B.(1998).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Loeber, R. (1982). The stability of antisocial and delinquent child behavior : A review. *Child Development*, 53, 1431-1446.
- Sokol-Katz, J., Dunham, R., & Zimmerman, R. (1997). Family structure versus parental attachment in controlling adolescent deviant behavior : A social control model, *Adolescence*, 32, 199-215.
- Synder, J., Reid, J., & Patterson, G. (2003). A social learning model of child and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In B. B. Lahey, T. E. Moffitt, & A. Caspi(Eds.) *Casues of conduct disorder and juvenile delinquency*(pp27-48).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investigation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delinquent peers between attachment to parents, low self-control and adolescent deviant behaviors. After specifying a research model based on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nd Hirschi's control theory of delinquency, the study analysed the model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data for this investigation came from a sample of 2,448 Korean adolescents.

The results showed the both measurement model and structural model had a good fit to the data and all paths of structural mode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main findings were the attachment to parents and low self-control had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adolescent deviant behaviors through delinquent peers. The implications for practical intervention and further research in the field of delinquency were discussed.

**Key Words:** adolescent deviant behaviors, attachment to parents,  
self-control, delinquent peers